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16호

2022.05. - 06.

column 칼럼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이봉순 (사)한국PCO협회장, (주)리컨벤션 대표
issue 이슈 1	메가 이벤트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할 조봉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부국장
issue 이슈 2	예술 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정책 신용철 시골 큐레이터
issue 이슈 3	관광·마이스에서 바라보는 지역 예술인의 역할 강석호 마이스부산 대표
문화+관광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 임 호 (주)핑크로더 문화·관광콘텐츠연구소장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5. - 06.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6호 | 2022.05.-06.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가 개최될 때, 지역 예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지역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6호에서는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를 주제로 예술, 관광, 그리고 연대의 접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Contents

- | | |
|---|---|
| 03 column 칼럼 | 12 issue 이슈 3 |
|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이봉순 (사)한국PCO협회장, (주)리컨벤션 대표 | 관광·마이스에서 바라보는
지역 예술인의 역할
강석호 마이스부산 대표 |
| 06 issue 이슈 1 | 15 문화+관광 |
| 메가 이벤트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할
- 창의·공감이 대세인 세상에 걸맞은 전략부터
조봉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부국장 |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
임 호 (주)핑크로더 문화·관광콘텐츠연구소장 |
| 09 issue 이슈 2 | 18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
| 예술 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정책
- 고리-집-길로 이어진 가온
신용철 시골 큐레이터 |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 | 22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이 봉순

(사)한국PCO협회장, (주)리컨벤션 대표

#2030부산세계박람회

2030년 5월 1일 우리 부산은 새로운 방식의 방문객을 맞으며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부산에 집중되었던 그 당시 1949년 부산의 인구는 47만 명이었으나 6.25전쟁 이후 1951년 84만 명으로, 거의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전쟁 피난민으로 거주민의 배가 부산을 대규모로 찾았다면 2030년 5월 1일 부산월드엑스포로 현재 부산 거주민 333만 명의 15배 넘는 5,050만 명 방문객이 약 200개국으로부터 184일간 부산을 찾게 된다.

총사업비 4조 9천억 원, 경제 파급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취업유발 50만 명으로 부산은 그야말로 지구촌 신천지로 새로운 부를 이루며 우리 도시의 존재 가치를 세계속에 드러내는 문을 열게 된다.

엑스포 유치에 위해 부산시는 2014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9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윤석열 현정부의 국정 과제 채택으로 정부와 재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돼 부산시의 유치 노력에 날개를 달게 됐다.

부산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등 3개 도시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도시로 지난 6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에서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최종 유치 확정이 되기까지 아직 난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 주연배우 이정재와 가상인간 ‘로지’(ROZY)에 이어 세계 최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30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나서 힘을 보태게 되었다.

만약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 최초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며, 엑스포로 부산은 미래에 대해 다양한 호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부산시가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가덕신

공항, 북항 재개발 등 3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함께 묶여진 사실상의 공동사업으로, 엑스포 유치 가 확정되면 다함께 이행되어 그야말로 부산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방문하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세계박람회인 두바이 엑스포가 지난 3월 31일 폐막식을 끝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대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두바이가 엑스포로 재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주제 하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192개국 2천만 명 참관객 돌파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다. 북한을 제외하면 유엔(UN) 가입 기준 정회원국(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 엑스포를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꼽는 이유다.

'지상 최대의 쇼'로 불렸던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성대한 팡파르를 울리며 200개가 넘는 파빌리온을 운영, 각자의 혁신 기술과 문화, 예술, 전시 등을 선보였다. 매일 펼쳐지는 60개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200개가 넘는 F&B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세계 각국의 음식은 6개월간 풍성하게 이어졌다. 코로나 상황에도 중동국가의 문화 예술 관광적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을 갖게 되었다.



두바이 엑스포의 중심, 개회식과 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공연, 이벤트 등이 열리는 주요 행사장. 알 와슬 프라자



떨어지는 빔방울 미디어아트와 우산을 활용하여 친환경 미래를 보여주는 네덜란드관 퍼포먼스

#부울경 지역의 문화유산과 엑스포의 결합 가능성

엑스포로 부산을 방문하는 5,050만 명 관람객들을 위하여 부울경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예술을 홍보하면서 다양한 관광적 체험과 콘텐츠들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부울경 문화공동체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울경의 문화 콘텐츠의 현실은 수도권에 비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2020.9 발간)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결과 2018년 기준 총 119조 원 중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약 104.5조 원으로 87.4%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이기에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정책도 필요하지만 평소 지역 문화에 대한 경쟁력과 관리가 스스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엑스포로 부울경 문화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생과 역동적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울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역사 예술 문화콘텐츠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묶어 방문객에게 경험치를 높일 수 있느냐 부분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기에 동선적으로 유리하다. 방문객들이 유럽이나 미국 심지어 남미에서 올 때 하루를 꼬박 걸려 부산에 오게 된다. 부산에 왔을 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 예술과 관광적 명소들을 부울경 지역을 확장해서 경험한다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함께 무엇보다도 문화 예술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유행해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확장되었고, 콘텐츠도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문화예술, 음식, 한글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류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이 되는 시대

부울경 지역의 문화유산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한류도, 그리고 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엑스포의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역의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엑스포와 결합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동남권 메가 시티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문화공동체가 각자가 갖는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이 풍요롭게 조화를 이루고 소위 '우리의 것'이 전 세계에서도 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부울경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 예술이 문화공동체로서 합작품이 탄생되어 엑스포 유치단계에서도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엑스포 개최 현장에서도 지구촌 방문객들에게 하나 되는 교감을 완성하며 부울경 지역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날을 행복하게 그려본다.

메가 이벤트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할 - 창의·공감이 대세인 세상에 걸맞은 전략부터

조 봉 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부국장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때는 관련 있는 사례를 찾아 참고하는 방법을 흔히들 쓴다.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는 시선을 갖추고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는 써봄직한 방법이다.

부산은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부산이 재도약해 세계 최고 수준 도시 반열에 들자면, 월드엑스포 같은 메가 이벤트 유치는 긴요한 과제라고 부산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유치 경쟁에 일찌감치 뛰어든 월드엑스포는 '등록' 박람회다. '인정' 박람회였던 2012년 여수 엑스포보다 훨씬 크다. 많은 부산 시민의 바람대로 부산이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와 관련된 많은 일은 대체로 '세계 정상급' '최첨단' '월드 베스트' 수준이나 기준에서 이뤄질 것이다.

동시에 명백한 '부산 지역 이벤트'로서 부산이 감당하는 기획·참여·책임의 영역이 주어질 것이다. 그중 부산 문화·예술계가 맡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월드엑스포는 전 세계가 한 도시에 운집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뽐내며 소통을 모색하고 이익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뛰는 현장이다. 그런 자리에 예술을 중심으로 한 창의 콘텐츠,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 콘텐츠, 예술·문화를 활용하는 첨단 콘텐츠가 없을 수 없다.

당신이라면, 창의·문화·첨단 콘텐츠가 예술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아름다움의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월드엑스포에 비싼 참가비 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서 가겠는가? 아마 '그 돈이면 BTS 콘서트나 블랙핑크 공연 티켓 구입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산의 '지역문화'가 바로 그런 분야에 참여해 상당한 역할을 당당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월드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속에는 있다.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에 나선 '부산'월드엑스포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획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적다면 늘려야 한다.

메가 이벤트와 지역 예술이 결합한 사례를 몇 가지 떠올려보자. 그 원조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1988년 서울올림픽이다. 이 두 행사는 한국이 세계 무대 중심부로 나아간, 상징적 메가 이벤트였다. 한국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펼쳐졌다. 여기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같은 해 한일 월드컵을 연계해 살필 수도 있다.

꽤 오랜 세월 부산지역 대학 무용학과 교수나 춤 예술가 명함과 공연 책자에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안무’와 관련한 경력이 새겨져 있었다. 이때의 경험은 메가 이벤트가 펼쳐짐에 따라 지역 예술계에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기획에 도전하고 실행할 기회가 올 수 있음을 각인시켰다.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살피면, 대형 작품이 창작돼 시민을 만났고 그 이후 재공연되기도 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공식 문화축전 작품으로 ‘허황후’가 제작됐다. 이 작품은 2009년 ‘가야 허황후’라는 대형 집체극으로 재공연됐다. 2003~2004년에는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연합공연 형태로 대거 참여한 ‘즐거워라 무릉도원’이 여러 차례 공연돼 꽤 인기를 끌었다. 2015년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가 동참한 종합예술공연 ‘부산 맥 아리랑’은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었다. 메가 이벤트와 연계된 대규모 예술행사는 이것 말고도 다수 시도됐다.

그 의미와 성과에 관해서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이다. 나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대형 기획이 이뤄지고 큰 작품이 만들어져 재공연까지 이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부대 행사 성격을 못 벗어났고, 일회성 시도(재공연을 포함한다 해도)에 그쳤으며, 지역 예술 생태계 변화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한 공연 전문가는 “그렇게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태어난 작품 가운데 시민 곁에 오래 살아남았거나 지역 예술계에 강력한 충격을 준 작품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고 되물었다.

나는 ‘즐거워라 무릉도원’은 시립예술단의 대형 연합공연이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겼고 작품 만들새도 좋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여기지만, 대체로 이 공연 예술가의 비판에 동의했다.

공연예술계 쪽 사례에 치우친 한계는 있지만, 지금까지 살핀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메가 이벤트가 열리면, 그와 연계된 새로운 기회, 계기가 지역 예술계에도 열린다. 그러나 이 계기를 지역 예술계, 예술인이 활용해 뜻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은 별개 문제이자 과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첫째는 역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접근이다. 아마 월드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한다고 해도 주최·주관 측이 ‘지역 예술계’를 ‘알아서’ 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세계 차원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손가락 엇을 행사가 아니다’는 식의 반응이 나올 것도 예상해야 한다. 월드엑스포에서는 분명히 예술·문화 분야의 참여 공간이 생길 텐데, ‘첨단·최신·대규모’를 앞세워 자원이 풍부한 중앙(결국, 서울이란 애기다)에서 기획·실행·인력·장비의 핵심이 모두 올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대두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대 행사’에 ‘찬조 출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철학적 대결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대는 지역·로컬·구체성·사람·창의력·참여가 생명력인 시대라는 점을 바탕으로 월드엑스포에 관한 전략적 사유와 접근이 지역 예술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정재와 BTS가 나서야 할 장면이 있고, 지역 예술계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조화·수용·개방 태도를 지니되 지역 시선도 필요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월드엑스포 자체에 관해 지역 예술계가 상당히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과연 예술·문화가 뿜어내는 창의력·공감력을 활용하지 않고 성공할 문화적 성격의 메가 이벤트가 있겠는가? 극히 드물 것이다. 이각규 박람회연구회장이 국제신문에 연재 중인 '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따르면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같은 최첨단·초대형 플랫폼 기업은 엑스포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엑스포 자체가 시시해지지는 않겠지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학습하거나 꺾지 않으면 지역 예술계는 지긋지긋하게 겪어온 '수동태의 함정'에 또 빠질 것이다.

셋째, 주체를 어떤 식으로 형성할지는 아직 잘 알 수 없지만(부산문화재단이 주도할지 예술단체가 맡을지 연구·교육 쪽에서 나설지 등), 기획 단계부터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을 다 짠 뒤에는 결합이나 참여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면, 지역 예술계가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변화·발전을 위해 월드 엑스포 같은 메가 이벤트의 어떤 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어떤 개인 또는 특정 단체에 이익이 돌아갈 그림이 나오느냐, 지역 예술계 전체의 상승과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 '설득력과 실행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뤄졌던 메가 이벤트+지역 예술 결합 사례를 살피는 방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술 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정책 - 고리-집-길로 이어진 가온

신용철
시골 큐레이터

1. 시골큐레이터

나는 스스로 시골큐레이터라고 부른다. 내가 일하는 곳은 부산 민주공원이고 맡은 자리는 학예실장이고 하는 일은 학예연구와 전시기획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도시 부산에서 일하는 큐레이터가 왜 시골큐레이터인가? 나는 되묻는다. 한국은 서울 빼고는 다 시골 아닌가? 나는 '시골큐레이터'란 말을 서울을 도발하고, 부산을 도발하고, 서울바라기를 도발하고, 부산바라기를 도발한다. '시골큐레이터'라는 말 그물은 모든 중심주의(centricism)를 도발하는 말뚝이 채찍이다.

올해 이슈페이퍼의 테마 '부울경 메가시티와 엑스포', 이번호 주제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라는 맥락을 가늠하기 위해서 지난 이슈페이퍼를 훑어보았다.

시골큐레이터에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말은 자못 거북하다. 시골큐레이터가 바라는 바는 모든 시골끼리의 고른 연대이다. 문턱은 있지만 문과 길로 이어져 있는 집들, 높고 낮은 언덕이 갖가지 눈길로 만나는 들판 같은 그런 것이다. 연대의 방향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걱정은 '변종 법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을 강조하는 차재근의 생각(<이슈페이퍼> 15호)과 이어져 있다.

풍물굿을 이르는 '전라좌도굿/전라우도굿', 수군 통제영을 일컫는 '좌수영/우수영'이라는 말밭으로 말길을 열어 본다. '좌/우'의 이항대립으로 빚어지는 방위의 위상학은 무엇인가? 우수영은 지금의 호남 지역, 좌수영은 지금의 영남 지역이다. 지도에서 보면 우수영이 좌(왼쪽)이고, 좌수영이 우(오른쪽)이다. 지도를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는 이미 대동여지도를 그렸던 민족이다. 지도 위에서 좌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좌도/우도, 좌수영/우수영이라는 쓰임새에서 왜 굳이 좌우를 뒤바꾼 것일까?

여기에서 좌우를 가르는 위상의 시점은 한성(서울)이다. 서울에서 남도를 바라보았을 때, 지도 위의 방위는 뒤집힌다. 하나의 중앙과 나머지 지방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앙을 바탕으로 모든 지방을 위계화하는 구조이다. 나는 이런 '봉건제적 시각의 위상학'이 여전히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낡은

구조물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적 시각의 위상학’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구조들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에게 근대문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직 근대는 있지만 없다. ‘시골큐레이터’라는 말 그물은 모든 근대적 시각 체계를 직조하는 베틀이다.

2. 고리에 고리를 무는 고리

시골큐레이터는 연대의 아이콘이다. 연대하는 이는 듣되 고개를 빠뜨리고 들어다 들어야 하고, 보되 눈손을 뺀어 만져야 하며, 말되 코를 묻고 말아야 한다. 사람이 고리이고 집이고 길이다. 공간, 기관, 정책은 ‘고리-잡-길’을 이어주는 ‘바람-햇빛-비’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한 남승우의 글(<이슈페이퍼> 14호)은 ‘바람-햇빛-비’의 틀과 쓰임새를 갈무리하는 좋은 글이다. 다만 울산 예술과 활발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짙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어 바로잡으려 한다. “울산에는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준비 중)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진술은 글이 실린 2022년 현재 사실이 아니다. 울산 문화재단(2016), 울주문화재단(2020)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고쳐주기 바란다.

시골큐레이터는 제 스스로가 플랫폼이고 허브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퍼져나가고 모이는 고리이다. 나는 시골큐레이터로서 모든 예술기획을 이런 바탕에서 설계하였다.

민중공원은 민중미술 거점 미술관이다. 거점이지만 중심은 아니다. 열린 거점으로서 플랫폼이고 허브이다. 2013년 시작한 ‘민중미술전’은 ‘민중미술’이란 미적 태도를 바탕으로 계층의 연대, 장르의 연대, 지역의 연대를 꾀하였다. 올해 10년이 되었다. 지역의 연대는 ‘민중미술의 현장’이란 섹션 안에 펼쳤다. 지역미술 담론을 나누는 프로젝트 ‘함께가는 그림판’은 2020년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전시를 계층, 장르, 지역 연대의 마음으로 만들면 시각의 들판은 갖가지 눈길이 만나 낯선 언덕을 이룬다.



민중미술 2020 포스터



함께가는그림판 11
울산시각예술.아카이브.
성찰.전망



민중예술가 백기완
노나메기 그림마당



울산시각예술프로젝트
- 정봉진

3. 고고학자의 마음 : 만지는 걸, 더듬는 커

영화 <잉글리쉬 페이스트>(The English Patient, 1996) 첫 시퀀스. 고고학자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연인을 어두운 동굴에 눕힌 채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났다. 전란에 휩싸여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영화를 본 이후 나는 지금까지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캄캄한 동굴에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누워 연인을 기다리다 끝내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프다.

우리의 미적 근대는 봉건제와 식민지 근대화 어름에서 홀로 어둔 동굴에 버려진 채 아직 묻혀 있다. 예술 마당을 여는 사람은 고고학자의 마음으로 예술의 씨줄과 날줄을 가능해야 한다. 동시대 예술 현장의 결을 온몸으로 매만져야 한다. 동굴의 속통을 더듬어 예술의 커를 캐내야 한다. 결과 커는 예술사를 균형 있게 직조하는 씨실과 날실이다. 우리시대 예술 마당을 만드는 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없는 가온, 어디든 가온, 때론 가온, 열린 가온

그리하여 가온이다. 본디 가온은 없다. 가온이 없어져야 가온이 산다. 어디든 가온이다. 모든 것이 가온이다. 가온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늘 가온이지 않다. 때때로 가온이고 때때로 가온이 아니다. 어즈버 열린 가온이다. 모든 가온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열려 있어 어디로 들어가도 나올 수 있는 고리-집-길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걸려 있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

관광·마이스에서 바라보는 지역 예술인의 역할

강석호
마이스부산 대표

관광마이스에 영감을 주는 문화예술의 실험정신

이 글에서 관광마이스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지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관광사업 범위에서 주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보다 부산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물론, 국내 관광객 유치도 포함이다. 그리고, 마이스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전시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는 관점에서 볼려고 한다. 따라서, 부산만의 대표적인 마이스 기획행사를 발굴하고, 국제적으로 권위있고 규모가 큰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문화예술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관광마이스는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즈니스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부분을 보다 감성적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삶의 매력을 만들어주며 도시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의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

6월에 처음 열린 부산거리예술축제 흔들거리에서 100명이 동시에 북을 치는 퍼포먼스는 관광과 연계해서 역동적인 도시홍보와 여행상품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사전에 서로 공유와 논의를 통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부산 거리예술축제 '흔들거리' 모습

관광마이스는 손익계산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우 현실적이고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시장수요를 이끄는 혁신이 더디게 되고, 결국 시장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실험정신이다. 반복적이고 보수적인 경제논리 사이에서 전혀 다른 배경과 기획의도에 의한 새로운 문화적인 실험이나 예술 작품은 그 도시의 고정관념을 넘어, 끊임없는 자극과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자극제가 결국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변화의 시대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비즈니스 역량을 성장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관광마이스 산업도 글로벌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나 예술 작품으로 그 지역의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문화예술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국제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를 주목하게 하는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잘 만든 예술 작품 하나가 있거나, 또는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런 예술가의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관광마이스 산업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해외 도시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은가?

끝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만큼 국제관계를 폭넓게 만들어 가기에 좋은 분야가 있을까? 하지만, 일회성 교류에 그쳐서는 안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단순히 연차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해외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할려고 노력하고, 오랜 기간동안 공을 들여 내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만큼 연속성 있고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킹 노력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이 있어야 앞으로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관광마이스 분야에서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연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같은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몇 가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것은 지역의 작가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에는 창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젊은 혁신과 세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스타트업의 수가 적은 양의 한계,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질의 문제가 있듯이, 문화예술 분야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글로벌 무대에서 그리고,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또는 그런 공간에서 주목 받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만들어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부산상공회의소 중심의 선배 기업들이 후배 스타트업들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으로 99°C 부산 스타트업 데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행사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시작되기도 했다.

마무리 하자면, 지역 예술인들의 보다 창의적인 실험정신을 통해 관광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정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본다. 예술은 경계가 없다.



99°C 부산 스타트업 데이 모습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

임호

(주)핑크로더 문화·관광콘텐츠연구소장

미술관 아트투어, 공연 및 예술축제 관람, 예술마을 탐방, 건축기행 등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자연경관과 역사자원을 주된 관광자원으로 한 대중관광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관광 흐름을 반영한다. 대규모 단체관광에서 소규모 또는 개별관광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알려진 관광지보다 숨은 관광지를 찾아가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개별적 취향의 충족과 지역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광욕구가 강한 경향도 확인된다.

예술관광은 예술시설, 예술유산 집적지, 예술콘텐츠 등 예술자원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관람, 체험, 학습하는 행태의 관광이라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의 하위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문화관광과는 관광대상, 동기, 목적 등에 차이가 있다. 문화관광은 타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라면, 예술관광은 인간의 표현력과 노력에 의해 창조되는 예술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즉, 예술관광은 예술자원을 대상으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예술향유를 목적으로 행하는 관광이다.

예술관광 이전에도 예술자원을 관광의 대상물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술향유를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관광과정에 부속된 관광자원으로 예술자원이 인식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예술관광이 성립되는 것은 예술향유가 관광의 주제가 되고 예술자원이 관광대상물이 되는 흐름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예술과 관광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술은 관광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해주고, 관광은 예술에 향유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예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예술자원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로 관광상품에 활력을 주고 관광지에 대한 매력도를 증가시킨다. 무엇보다도 예술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관광 활성화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영국 게이츠헤드의 발틱현대미술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는 물론 국내에서도 부산의 F1963, 마산 창동예술촌 등 수많은 예술시설 및 공간들이 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 성과를 창출하면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예술시설과 스토리를 활용한 문화예술축제 역시 예술관광의 오래된 대상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뉴욕의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Museum Mile Festival), 영국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은 익히 세계적인 관광매력을 얻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의 영화제, 통영국제음악제, 거창국제연극제 등도 국내외의 예술관광객을 개최지역으로 모으고 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예술마을들도 예술관광의 대상지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부산 원도심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태국 치앙마이 반캉왓(Bann Kang Wat) 예술인 마을 등도 예술관광 대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두고 볼 때 부산에도 예술관광자원으로 활용성 높은 예술시설이나 공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곳에는 예술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이나 지역에서 예술관광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관광객이 개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아울러 예술시설에서도 이미지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광자원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술자원의 관광화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서툴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관광자가 얻고자 하는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예술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이나 부가서비스의 기획과 관광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연, 전시, 축제와 관련한 정보를 관광기업에 제공하고, 관광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예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한 다음 예술시설이나 단체와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술자원 및 시설 간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영화제 기간에 미술관의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관광객들에게 유인을 제공한다면 훨씬 풍성한 예술관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굳이 부산지역 안에서만 충족될 필요는 없다. 부·울·경 지역의 예술자원 간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의 기획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노력이 산업과 교통인프라 조성에 집중되는 반면 문화예술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은 보기 어렵다. 지역 간 관광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예술관광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6.1지방선거가 지나면서 울산과 경남의 광역단체장은 부·울·경 광역자치단체 협력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예술과 관광은 행정적 경계를 쉽게 넘어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예술과 관광의 결합이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익히 알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류협력프로그램의 실행이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예술을 예술이라는 틀 안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분야 종사자의 개방적인 관광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관광분야 종사자들도 지역의 예술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의 기획에 창의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해서도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예술과 관광의 가치를 모두 높이고,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¹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역분권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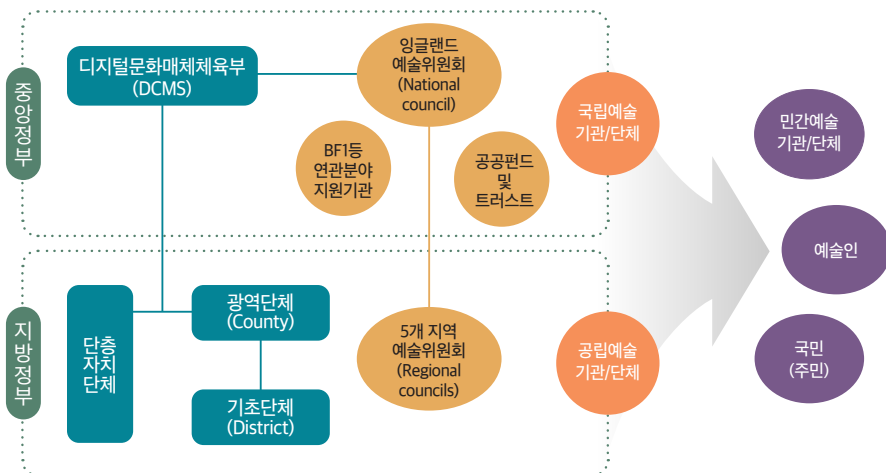
<국내 정부별 예술지원정책 영역에서의 지역분권 정책>

정부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2016)	문재인 정부 (2017~2022)
추진 사항	「창의한국」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수립	예술지원방식 개선 및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추진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수립·발표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설정 ● 지역문화 고유성 유지·발전 ● 지역 내 문화자치 량 위한 기반조성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등

그러나 지역분권의제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이후 가속화 되었지만 예술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는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예술지원정책 체계와 분권화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예술지원정책 영역에서의 지역분권을 위한 의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 중 지역분권 관점에서 3개국의 예술지원정책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본다.

[영국] 합리성과 협업을 강조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¹ 본 연구보고서는 20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임.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원고 내용 및 각국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도는 연구보고서에서 발췌, 요약하였음을 밝힘.

- ▶ 기초단체 지향 정책 추진
- ▶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중앙	광역
국가를 대표하는 창작물에 관한 권한·책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험에 관한 권한·책임
광역	기초
광역 내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 및 브랜딩	주민들의 향유 사업 담당

- ▶ 예술위원회 중심의 명확하고 단순한 예술지원 정책 구조
- ▶ 협업생산 모델의 중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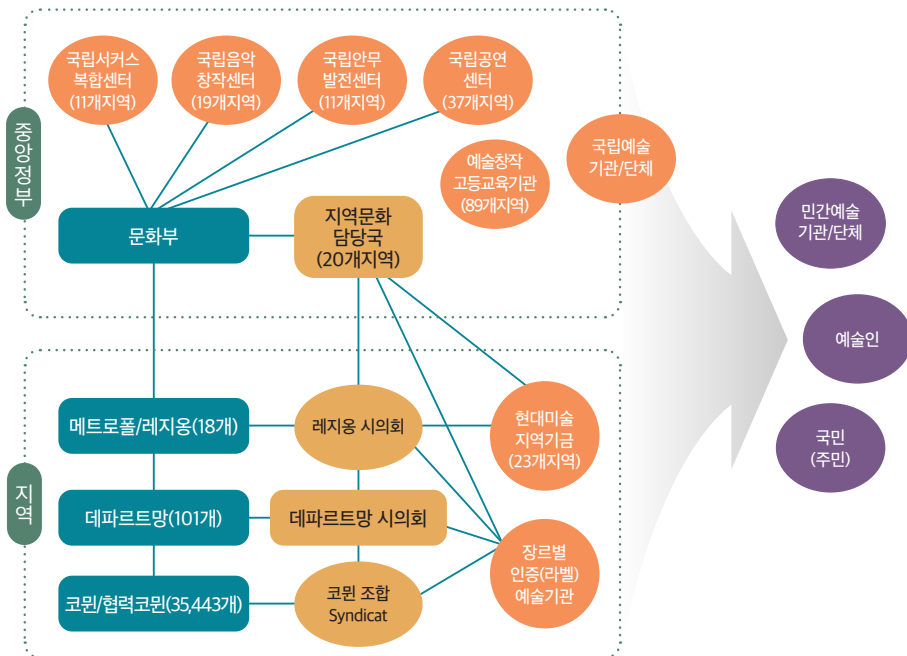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성공사례들의 공통점²>

커뮤니티 참여	강력한 파트너십
성공 경험을 활용한 펀딩 기회 확보	핵심 그룹 및 지역 내 옹호자의 존재

- ▶ 지방정부연합(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명확한 역할
 - ☞ 문화분야 정기 조사 실시, 지역 현장 활동전문가 중심의 담론 확산 역할

[프랑스]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꽃피우는 문화분권

<프랑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 정책 추진체계>



2 People, culture, place: The role of culture in placemaking(LGA&CLO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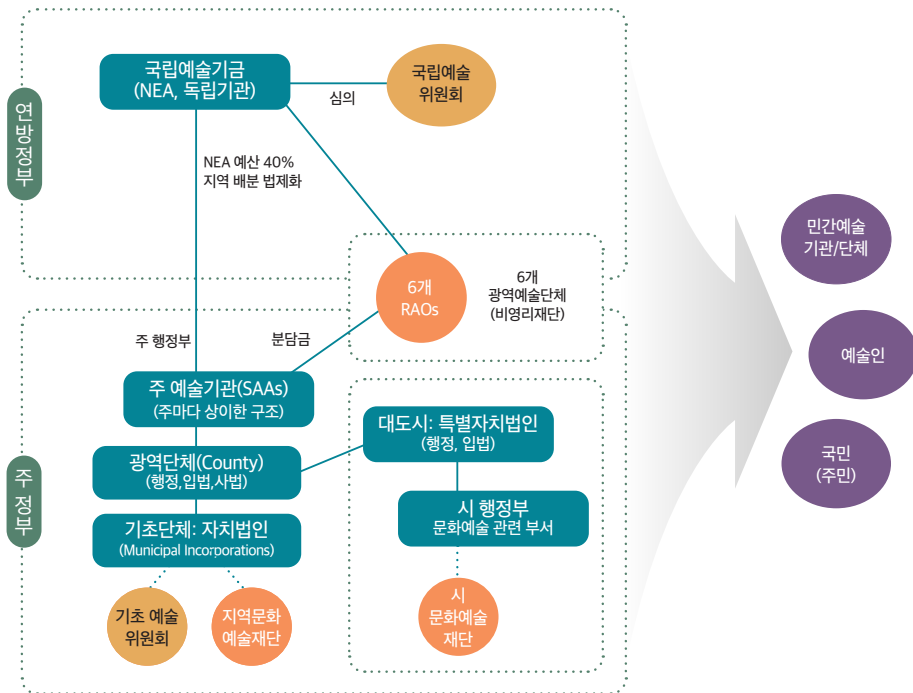
- ▶ 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초지자체 '코뮌(Commune)'의 역할 강화
- ▶ 문화협정 등 중앙-지역 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지역문화담당국(DRAC)은 중앙 문화부의 시책을 단순히 지자체에 재배분하는 것이 아닌, 프랑스 문화분권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지자체와 협약에 의한 수평적 관계 유지!

- ▶ 지자체와 공공문화기관 간 협력을 조직화 한 공공단체, EPCC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le, 문화협력공공법인)³ 설립
- ▶ 지역에 대한 자율과 책임 부여로 지역 자치 역량 강화
- ▶ 평가를 통한 지역 예술지원정책 관리

[미국] 창의적인 시도는 “지역” 중심으로!

<미국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 ▶ 국립예술기금(NEA) 연 예산의 40%는 파트너십 기금으로 법제화
 - ☞ 해당 예산은 56개주 주립예술진흥원 및 6개 광역예술기구에 경쟁 통해 배분토록 법제화
- ▶ 국립-광역-지역 예술기관 간 긴밀한 협력
 - ☞ 주정부 예술위원회(SSAs, State Arts Agencies)를 중심으로 국립예술기금(NEA), 광역예술기구 (RAOs, Regional Arts Organizations), 지역정부 예술진흥기구(Local Art Agency) 등과 긴밀하게 연결

3 지자체와 공공문화기관 간 협력을 조직화 한 공공단체로, 지역 중요 문화시설 및 공공문화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 ▶ 지역정부의 독자적, 혁신적 문화예술 정책 실험 시도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알아보는 '문화분권'의 공통 핵심은?

- ▶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 지자체간 연합과 연대, 협력체의 역할을 강화
- ▶ 중앙-지자체 간 협약 등으로
 -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
 -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05. - 06.

부산문화재단

- **부산다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든다(5.11.)**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올해 부산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BS ARTE 아카데미」운영계획을 밝혔다. BS ARTE 아카데미는 대상별 연수과정과 특화 연수과정으로 나눠 5월부터 연중 진행된다. 대상별 연수과정은 문화예술교육 예비인력, 기획자, 매개자 등을 중심으로 예비인력연수, 기초-심화-전문가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교육행정은 연수프로그램 형태로 추진한다.
- **문화다양성을 위하다, '위(We)하는 마음'(5.16.)**
재단은 5월 20일부터 12일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위하는 마음>를 개최했다. 무지개 다리 사업 운영 10년차를 맞이하여 문화다양성의 주요 키워드 '환대, 사회갈등완화, 공존, 포용' 4가지 섹션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다.
-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 행사 개최(5.25.)**
재단은 5월부터 8월까지 생활문화 가치확산 캠페인 '2022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힘을 합쳐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수렴(5.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5월 24일(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개최하고, 동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회복과 전환 논한다(5.17.)**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5월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제11회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 **공예의 기원 '땅'을 주제로 밀라노에서 한국 공예 선보인다(5.30.)**
문체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이탈리아 '2022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6월 7일(화)부터 12일(일)까지 펠트리넬리(Fondazione Feltrinelli)에서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문화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위한 누리집(문화예술, 내 일) 활용 등을 추진한다.
- **예술위, 데이터 활용 예술 지평 넓힌다(5.23)**
예술위는 데이터와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예술작품 창작 및 확산을 매개하여 지속가능한 창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의 2단계로 예술인(단체) 대상 지원신청을 6월 13일 18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결과 발표(5.25.)**
예술위는 5월 25일, 2020년 한 해 동안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6개 분야별 창작 발표 활동 현황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한 「2021 문예연감(2020년 기준)」을 발간하였다. 시스템(NCAS)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재단

- **대구예술발전소 X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교류전시 <다파티스트 외전>(5.9.)**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와의 교류전시 <다파티스 (DAF+ARTIST) 외전(外傳)>을 5월 20일(금)부터 6월 12일(일)까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1층 및 지하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인천문화재단

- **시민이 기획자다! <2022 우주인 프로젝트> 5월 공모(5.20.)**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2022 우주인 프로젝트> 5월 공모를 5월 18일(수)부터 같은 달 26일(목)까지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 **인천문화재단, <창작과 삶의 리듬> 라운드 테이블 개최(6.2.)**
재단은 오는 6월 8일(수)과 15일(수), 양일에 걸쳐 예술인의 자녀 돌봄과 창작의 균형을 모색하는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어려운 저작권 시원하게 해결하세요!(5.26.)**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은 도내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1인기업, 예비창업자,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에도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전남문화재단

- **전남 문화예술 다시 활력을! (포스트 코로나, 아트 붐업 지원사업)(5.19.)**
전남문화재단은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아트 붐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6호

2022.05.- 06.



02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2. 6. 30.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서승우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